

北韓의 歷史學 體系 概觀*

鄭 杜 熙

- I. 서론
- II. 개항이전 역사의 서술체계
- III. 개항이후 1945년까지의 역사서술 체계
- IV. 해방이후 현대사의 서술체계
- V. 맺는 말

I. 서론

북한의 역사학 체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필자는 북한에서 출판된 역사서 가운데 다음과 같은 책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았다.

- 『조선통사』 (상)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77)
- 『조선통사』 (상) (사회과학출판사, 1991)
- 『조선통사』 (하)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58)
- 『조선통사』 (하) (사회과학출판사, 1987)
- 『현대조선력사』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83)

* 이 논문은 1996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인문사회과학 중점연구)의 지원에 의해 연구·완성되었음.

『조선전사』(전16권)(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79, 1980)

위의 역사서 가운데 『조선통사』는 북한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한국사 개설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책의 상권은 선사시대부터 19세기 개항 이전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하권은 개항이후부터 현대까지를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통사』에는 북한 역사학의 체계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현대사를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조선력사』는 그 자체로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현대조선력사』는 그 다루는 시기가 『조선통사』의 하권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 양사 사이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현대사 체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 특히 『현대조선력사』는 1983년판이며, 이 글의 대상이 된 『조선통사』의 하권은 1977년과 1987년판이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현대사 서술체계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성은 크다고 생각한다. 『조선전사』는 전16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개항이전의 역사연구의 체계를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전사』와 『조선통사』의 상권을 비교해 보면 이들이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체계화하려고 노력하였는가를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¹⁾

최근 북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학계에서도 북한의 역사학에 대

1) 북한 역사학의 시대구분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학계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다. 『역사비평』 1991년 봄호에서는 “남북한의 ‘우리역사 시기구분’을 둘러싼 쟁점”이라는 제목하에 이 문제를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네 편의 논문이 실려있다.

한창균, 「선사시대의 존재양태와 거래의 기원문제」

하일식, 「노예제사회는 존재하였나」

전덕재, 「봉건제사회의 기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배항섭, 「왜 남북한 근현대 시기구분, 큰 차이 있나」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남북한 학계의 시대구분상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게는 되었지만, 북한 역사학의 체계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는 관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여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 역사학의 실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북한 역사학의 체계라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²⁾

II. 개항이전 역사의 시대구분

1. 원시사회

1977년판 『조선통사(상)』의 제1편은 '원시사회'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원시사회는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로 구분하여 서술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여기서는 원시무리에서 모계씨족사회로, 이어서 부계씨족사회의 3단계로 나누어 있다. 이들은 1966년 평양시 상원군의 검은 모루유적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분석하여 대체로 60-40만년전에는 북한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추정하였으며, 이 유적지는 "구석기시대의 유적으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유적의 하나"라고 단정하였다.³⁾ 그리고 이 때를 구석기시대의 전기라 보고, 아직 그 사회의 발전

2) 북한의 역사학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은 책들을 통하여도 시도된 바가 있다.

김정배 편, 『북한이 보는 우리 역사』 (윤유문화사, 1989)

안병우 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인식』 [I, II] (한길사, 1990)

김정배 편, 『북한의 우리 고대사 인식』 [I, II]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1)

이런 연구들을 통하여 북한의 역사학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으나, 이 연구들은 모두 북한에서의 한국사 연구들을 주제별로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연구자가 지향하는 이념적인 편향성이 너무나 강하게 작용한 것들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이런 연구들을 통해 북한의 역사학의 체계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남한에서의 북한 역사학에 관한 연구의 현황에 대하여는 또 다른 기회에 검토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단계를 알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사회를 원시무리라 이름하였다.

이어서 북한에서는 1963년에 발견된 함경북도 웅기군 굴포리 유적의 제2기층이 구석기시대의 후기층에 속하는 것으로 단정하였으며, 이 시기는 대략 3-4만년 전의 것이라고 추정하였다.⁴⁾ 그리고 이 때에 형성된 사회를 모계씨족 사회로 규정하였다. 이 당시에는 여자의 역할이 남자보다 더 컸으며, 군혼이 지배하던 당시에는 혈연관계도 모계로서만 따질 수 있었으며 같은 씨족 성원 사이의 혼인은 금지되어 있었던 만큼 아버지는 항상 다른 씨족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원전 5,000년대에 우리나라와 요하유역의 넓은 지역에서는 같은 갈래의 문화를 가진 신석기시대의 여러 종족이 살았는데, 이들은 기원전 4,000-3,000년대에는 발전한 신석기시대의 사회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단정하였다. 구석기시대 후기에 발생하였던 모계씨족공동체 제도는 신석기시대에 와서 발전의 절정에 도달하였다.

기원전 2,000년대 전반기에는 청동기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사회경제는 그 이전 시대에 비하여 크게 발전하였다. 특히 시대에는 농업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가축을 기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생산이 발전하여 감에 따라 원시공동체 안에서 일정한 사회적 부의 축적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남성의 생산활동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남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하여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출현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생산력을 발전은 청동기사회에 사유재산제도를 발전하게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같은 사회구성원 사이에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원시공동체는 무너지고 “사회는 얼마 안되는 지배계급과 그들에게 착취당하고 압박받는 절대 다수

3) 『조선통사』(상)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77) p.3.

4) 앞의 책, p.14.

의 인민대중으로 이루어진 피지배계급으로 갈라지게”⁵⁾ 되었으며, 그 결과 “계급투쟁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인류역사는 계급투쟁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역사”⁶⁾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1979년판 『조선전사』의 제1권 원시편을 보면 원시무리시기, 초기 모계씨족사회, 모계씨족사회의 발전, 부계씨족사회의 4장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모계 씨족사회를 두 단계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으며, 모계사회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시 절을 나누어 노동도구의 개선, 원시농업 및 가축의 사육, 사냥과 물고기잡이, 집의 짜임새, 원시적 수공업 생산과 원시문화의 발전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조선전사』는 년표를 제외하고도 15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1권에서는 원시사회만 다루고 있는데도, 당시의 경제사만을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1991년판 『조선통사』(상)권을 보면 제1편을 원시사회라 이름하고 그 1장을 원시공동체사회라 하였다. 그리고 이 원시공동체사회를 모두 원시무리, 모계씨족공동체, 부계씨족공동체, 원시공동체사회의 붕괴라는 4절로 나누었다. 그리고 2절의 모계씨족공동체 부분에서는 모계씨족공동체의 발생, 생산활동과 원시문화의 발전, 모계씨족제도의 발전이라는 세부분으로 나누어 목차를 설정하였으며, 3절의 부계씨족공동체에서는 부계씨족공동체의 형성, 생산의 발전과 생활풍습의 변화, 원시에 술과 신앙의 세부분으로 나누었다.

이상 세 책에서의 원시사회에 대한 시대구분의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해보았지만, 1977년에서 1991년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시대구분 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991년판 『조선통사』에서 와서 원시사회의 서술이 목차상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기본골격은 1977년판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같은 『조선통사』라는 점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5) 앞의 책, p. 40.

6) 위와 같음.

있지만, 1979년의 『조선전사』 1권의 원시사회 서술체계도 이와 완전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보면 원시사회의 시대구분은 책의 출판년대나 출판사, 그리고 저자가 달라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노예소유자사회

1977년판 『조선통사』 (상)권의 제2편은 ‘노예소유자사회’로 이름하고, ‘우리 나라 노예소유자사회’라는 한 장을 두었다. 그리고 이것을 모두 5절로 나누어 고대국가의 성립, 경제제도, 사회제도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다시 고대국가의 붕괴 및 노예소유자사회의 문화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들이 노예소유자사회 시대로 구분한 때를 고대국가가 성립한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따라 고대에는 노예제사회가 있었다는 점을 한국사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며, 이 노예제 사회가 한국에서는 고대국가들이 성립, 발전, 쇠퇴한 시기로 본 것이다. 한 때 남한의 학계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성립한 국가를 고대국가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때의 고대국가는 삼국의 원형이 되는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던 때의 국가를 의미하였으며, 심지어는 삼국까지도 고대국가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에서 대표적인 고대국가는 고조선과 부여였다. 이들은 한반도의 남쪽 지역에서 널리 퍼져있던 삼한의 사회에 대하여는 거의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청동기 시대에 진행된 정복전쟁의 결과로 발생하기 시작하였던 노예제가 점차 확대되어, “원시공동체사회의 말기에 이르러 이 종족들 안에서 발생한 노예소유자적 경리형태는 생산력이 더욱 발전되고 사회적 분업이 심화되는 데 따라 점차 공동체적인 경제형태를 뒤로 밀

면서 지배적인 경제형태로 등장하였으며 그에 토대하여 최초의 계급국가인 노예소유자국이 고조선, 부여, 진국이 성립되었다.”⁷⁾고 한다. 이처럼 이들은 철저하게 계급사관에 입각하여 역사서술을 하고 있으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최초 국가라 할 수 있는 고조선은 계급국가인 노예소유자국가라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의 발생을 매우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수천 수만 년 동안 자연의 예측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이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던 인민들은 계급사회에 들어오면서 다시 사회적 예측에 얽매이게 되었다.”⁸⁾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고조선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형성된 국가”임을 유난히도 강조하면서, 고조선의 원래의 국호는 ‘조선’인데 후세의 조선과 구별하기 위하여 고조선이라고 부를 뿐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기록해 두었다.⁹⁾ 이것은 그들의 국호인 조선이 저 멀리 고조선시대로부터 이어지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기원전 100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기원전 3-2세기 경에는 철기가 널리 보급되어 사회의 생산력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철기가 사용되기 시작한 연대나 고조선의 성립연대 등 모두는 남한에서보다 수백년이나 앞선 것으로 되어있다. 북한에서는 가능한 한 역사의 연대를 올려 잡으려 하고 있으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일에는 상당히 소홀하다.

이들은 소위 고조선의 ‘8조의 법금’ 존재 자체가 노예소유자적 소유 형태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8조의 법금 중 절도죄에 대한 조항과 변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절도자를 노예로 삼는다는 규정을 들어, 이것이야 말로 “부자놈들이 저들에게 항거한 빈민들에게

7) 앞의 책, p.41.

8) 앞의 책, p.43.

9) 앞의 책, p.43.

서 곡물을 빼앗아낸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생산력 발전수준이 낮았던 고대사회의 역사적 조건에서는 빈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었으며 그들을 채무노예로 전락시키는 방법의 하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금이 존재했던 고조선의 사회경제제도는 ‘노예소유자적 소유관계에 기초’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¹⁰⁾ 사실 청동기 시대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초기의 국가들에 노예가 존재하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사회에서 모든 생산활동은 노예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고조선의 성립시기를 기원전 10세기 경으로, 철기시대의 시작을 기원전 3-2세기로 보는 것은 남한의 견해와는 너무나도 다르며, 동시에 고조선 사회를 고대노예제 사회로 보는 것도 지나치게 노예의 존재 자체를 확대해석한 결과일 수가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고대국가의 대표적인 예로 부여를 들고 있다. 이 부여는 기원전 5세기 경에 성립하였으며, 이 사회 또한 노예제 사회였다고 주장한다. 부여의 사회구조를 보면 노예와 하호, 평민들이 있었지만, “노예들은 노예소유자들의 완전소유로 되어 가혹하게 착취당하였으며 짐 짐승처럼 매매되고 죽음을 당하는 말하자면 ‘말하는 생산도구’였다. . . 노예는 모든 인간적 권리와 재산상 권리를 빼앗기고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자주성을 완전히 짓밟혔으며 죽을 때까지 그 처지를 면할 수 없었다.”¹¹⁾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노예의 일반적 상황을 말해 주는 사료는 거의 없다.

3. 봉건사회

10) 이상은 앞의 책, pp. 51-52 참조.

11) 앞의 책, p.55.

1977년판의 『조선통사』(상)권의 제3편은 봉건사회라는 제목으로 엮여졌으며, 모두 12장으로 나뉘어진 이 책 가운데서 10개의 장이 이 봉건사회를 다룬 부분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역사학에서 봉건시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가 있다.

이들은 봉건사회를 “정권이 봉건지주계급의 손에 있고 주요 생산수단인 토지에 대한 봉건적 소유형태가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사회”라고 정의하고,¹²⁾ 우리 나라에서는 기원전후 시기에 봉건사회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정의한 바 ‘고대사회’에서 피지배계급이었던 노예들이 봉건사회에 와서는 예속적 봉건농노가 되었으며, 이처럼 “피지배계급 인민들이 노예로부터 농노적 존재로 전화한 것은 그들이 계급적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기적인 투쟁에서 커다란 성공을 이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¹³⁾

이렇게 봉건사회를 정의한 이들은 우리 나라의 삼국시대를 전형적인 봉건사회가 출현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봉건사회가 처음 나타난 대목을 “우리 나라에서 봉건사회의 발생, 세나라에서의 봉건관계의 발전”이라는 장으로 서술하였으며, 이 때는 1세기에서 7세기에 이르는 시대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소위 신라의 삼국통일기를 “8-9세기 봉건관계의 발전”이라고 구분하고하였으며, 신라말 후삼국이 출현하던 시대까지를 다루었다.

고려가 건국되어 후삼국을 통일한 때로부터 고려중기 무인정권이 들어서던 때까지를 “10-11세기 봉건제도의 정비와 봉건적 예속의 강화”라고 나누었으며, 여기에 고려 전기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고려 중기 무인정권이 들어서던 때는 전국적으로 농민과 노비의 반란이 크게 일어났던 시대였으며, 그 뒤를 이어 몽고의 침략이 계속되었다. 북한에서는 무인정권시대를 거의 다루지 않고, 오히려 이 시대를 “12세기 전국

12) 앞의 책, p.81.

13) 위와 같음.

적 대농민 폭동, 13세기 몽골침략군을 물리친 인민들의 투쟁”라는 이름을 구분하고 있다. 고려 후기에 해당되는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말은 “고려봉건국가의 멸망과 리조봉건국가의 성립”이라 하였으며, 여기에서 조선왕조의 건국까지를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1392년 조선왕조의 건국 이후의 약 1세기간은 “15세기 봉건체제의 재편성, 경제와 문화의 발전”이라 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임진왜란이 종결되는 1598년까지를 “16세기 대토지소유의 발전, 1592-1598년 임진조국전쟁”이라고 시대를 구분하였다. 이후의 시대도 모두 1세기를 단위로 나누면서, 17세기는 “17세기 상품화폐관계의 발전”, 18세기는 “18세기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실학의 발전”이라 하였으며, 이후 개항할 때까지를 “19세기초, 19세기 중엽 봉건체제의 위기와 농민폭동의 양양”이라는 이름으로 서술하고 있다.

한편 『조선전사』는 제3권에서 12권까지를 ‘중세편’이라 구분하였는데, 이는 『조선통사』에서 봉건사회로 나눈 시기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봉건사회나 중세를 같은 시대로 보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유물사관에서 말한 ‘중세봉건사회’라는 시대를 나누어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전사』의 제3권은 고구려사가 9개의 장으로 나누어 서술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중앙집권과 국방력의 강화”, “료동회복, 령토의 확장”, “고구려국가의 강성”, “수나라침략자들을 반대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 “당나라침략자들을 반대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 등 고구려의 대외항쟁에 대해서만 5개의 장을 할애하였으며, 특히 5장에서는 “평양으로의 수도옮김과 수도건설”이라 하여 평양으로 수도를 삼은 사실을 독립적으로 서술하고 있음도 주목된다. 『조선전사』의 제4권에서는 백제와 통일 이전의 신라사를 서술하였으며, 그 끝에 간략하게 가야사를 기술하고 있다.

『조선전사』의 제5권에서는 “발해 및 후기신라사”라는 제목하에 먼저

발해의 역사를 6장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후반부를 소위 통일신라에 해당되는 후기신라사라는 제목으로 서술하였다. 이 시대에 대하여 북한에서는 특히 발해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음이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는 지방의 호족들이 크게 성장하였던 후삼국시대를 독립적인 시대로 다루지 않고 있으며, 『조선전사』의 제6권에서 고려왕조의 건국에서 13세기초까지의 역사를, 그리고 『조선전사』의 제7권에서는 13세기초부터 고려의 멸망까지를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고려시대사를 두 권에 나누어 서술하였지만, 그 중심내용은 거란, 여진, 몽고족, 홍건적, 왜구등의 침략에 대한 항쟁사가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전사』의 8권에서부터 12권까지는 조선시대의 역사를 1세기별로 나누어 15세기에서 19세기 중반까지를 한권씩 할애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편제는 『조선통사』(상)권의 시대구분과 거의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 『조선통사』(상)의 제8장에서 12장까지는 『조선전사』의 8권에서 12권까지의 시대구분과 같다. 예컨대 『조선통사』(상)의 제10장에서는 '17세기 상품화폐관계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이 때의 사회경제의 발전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17세기 전반기 대내외정세', '17세기후반기 생산의 복구와 상업의 발전', '대동법의 실시와 금속화폐의 전국적 유통의 시작', '17세기의 문화' 등 4절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조선전사』의 제10권은 모두 7장으로 나누어 있지만, 그 서술의 내용이 좀 더 자세할 뿐 실제로는 『조선통사』(상)의 편제와 동일하다. 『조선전사』 제10권의 제1장과 2장은 '17세기 전반기의 대내외정세'와 '외래침략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이라는 내용을 되어 있지만, 이것은 통사의 '17세기 전반기 대내외정세'에 종합적으로 서술된 내용과 동일하다. 그리고 『조선전사』 제10권의 3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모두 『조선통사』(상)의 제10장 제2절과 3절의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며, 『조선전사』의 제7장은 『조선통사』(상)의 제4절과 마찬가지로 17세기의 문화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어느 것을 비교하여 보아도

『조선통사』의 한 장을 『조선전사』에서는 책 한 권으로 확대 서술한 것 일뿐 시대구분이나 서술의 기본방향에서 다른 것은 하나도 없다.

1977년판 『조선통사』(상)은 선사시대에서 개항이전까지를 모두 12개 장으로 나누었지만, 1991년판에서는 이것을 10장으로 구분하였다. 1977년판의 제5, 6, 7장은 고려의 후삼국통일에서부터 고려의 멸망까지를 다룬 것인데, 1991년판에서는 6장의 내용 가운데 무인정권 기간의 농민노비의 반란을 앞으로 붙이고, 몽고와의 항쟁부분을 뒤로 부쳐 정리하였다. 그리고 1977년판에서는 조선왕조의 건국에서 임진왜란의 종결까지를 제8장과 9장으로 나누었지만, 1991년판에서는 이것을 하나로 묶었다. 이렇게 해서 1977년판에서 12개 장으로 되어있던 것을 1991년판에서는 10개의 장으로 정리하였던 것이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7년판과 1991년판의 『조선통사』의 시대구분에는 그 나름대로 차이점이 있다. 이것을 알아 보기 위하여 두 판본의 『조선통사』(상)의 시대구분을 정리하여 다음의 <표 1>로 정리하였다.

1977년판 『조선통사』(상)	1991년판 『조선통사』(상)
제1편 원시사회 제1장 원시공동체사회 제1절 원시무리 제2절 모계씨족공동체 제3절 부계씨족공동체 제4절 원시공동체사회의 붕괴	제1편 원시사회 제1장 원시공동체사회 제1절 원시무리 제2절 모계씨족공동체 제3절 부계씨족공동체 제4절 원시공동체사회의 붕괴
제2편 노예소유자사회 제2장 우리 나라 노예소유자사회 제1절 우리 나라 고대국가들의 성립 제2절 우리 나라 고대국가들의 경제제도 제3절 우리 나라 고대국가들의 사회제도 제4절 우리 나라 고대국가들의 붕괴 제5절 우리 나라 노예소유자사회의 문화	제2편 노예소유자사회 제2장 고대국가들의 성립과 사회경제제 제1절 고대국가들의 성립과 사회경제제도 제2절 고대국가들의 경제발전 제3절 고대국가들에서의 소유형태와 계급관계 제4절 고대국가들의 통치제도 제5절 고대국가들의 붕괴 제6절 고대국가들의 문화

제3편 봉건사회 제3장 우리 나라에서 봉건사회의 발생 세나라에서의 봉건관계의 발전 제1절 봉건제도의 성립 제2절 고구려를 비롯한 세나라와 가야국의 형성 제3절 봉건관계의 발전, 1-7세기의 경제제도와 사회제도 제4절 고구려의 강성과 세나라의 호상관계 제5절 수, 당 침략자들을 반대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 제6절 1-7세기의 문화와 예술	제3편 봉건사회 제3장 첫 봉건국가들의 형성, 봉건관계의 발전 제1절 봉건제도의 성립 제2절 고구려를 비롯한 봉건국가들의 성립 제3절 4세기까지의 반침략투쟁과 령토확장 세나라의 사회경제제도와 통치체제 제4절 고구려에 의한 국토통일정책의 추진과 세나라의 호상관계 제5절 수, 당 침략자들을 반대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 제6절 세나라시기의 문화
제4장 8-9세기 봉건관계의 발전 제1절 신라에 의한 국토남부의 통합과 발해의 성립 제2절 신라, 발해의 경제제도와 사회제도 제3절 7세기말-10세기초의 문화 제4절 9세기후반기 신라에서 농민 폭동의 양상과 후삼국의 출현	제4장 7세기중말엽의 반침략투쟁과 발해의 성립, 발해와 후기신라에서의 봉건관계의 발전 제1절 7세기중말엽 신라-당 연합군의 침공을 반대한 고구려, 백제인민들의 투쟁, 발해의 성립 제2절 발해와 후기신라에서의 봉건관계의 발전 제3절 7세기말엽-10세기초엽의 문화 제4절 9세기 후반기 신라에서의 농민전쟁 <후삼국>에로의 분열

제5장 10-11세기 봉건제도의 정비와 봉건적 예측의 강화 제1절 고려에 의한 후삼국의 통일 제2절 봉건적중앙집권적체제의 강화 제3절 거란침략군을 물리친 고려인민들의 투쟁 제4절 전후 생산 및 대내외상업의 발전 제5절 문화	제5장 고려에 의한 국토의 통일, 거란의 대규모적인 침입의 분쇄, 전국적대농민전쟁 제1절 통일국가-고려의 출현, 봉건제도의 재편성 제2절 고려-거란전쟁 제3절 전후 봉건경제의 발전과 대외관계의 확대 제4절 12세기 후반기-13세기초의 전국적인 대농민전쟁 제5절 10-12세기 문화
제6장 12세기 전국적대농민폭동. 13세기 몽골침략군을 물리친 고려인민들의 투쟁 제1절 대토지소유의 성장과 봉건적 착취의 강화, 9성전 제2절 1135-1136년 정변. 1170년 무신관료배들의 정권장악 제3절 12세기말-13세기초 전국적대농민폭동 제4절 봉건관계의 발전 제5절 몽골침략군을 물리친 고려인민들의 투쟁	제6장 13-14세기척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고려인민의 투쟁, 고려왕조의 종말 제1절 몽골군의 침입을 분쇄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 제2절 13세기말엽-14세기의 국내형편 제3절 14세기 후반기 국토안정을 위한 투쟁 제4절 1388년 고려의 료동출병, 고려왕조의 종말 제5절 13-14세기의 문화
제7장 고려봉건국가의 멸망과 리조봉건국가의 성립 제1절 외래침략자들을 쳐물리친 인민들의 투쟁 제2절 대토지소유의 팽창과 과전법의 제정 리조봉건국가의 성립 제3절 13-14세기의 문화	

제8장 15세기 봉건체제의 재편성, 경제와 문화의 발전 제1절 중앙집권적인 봉건체제의 재편성 제2절 쑤시마공격과 4군6진의 설치 제3절 경제의 발전 제4절 봉건적착취의 강화, 1467년 함경도농민전쟁 제5절 15세기의 문화	제7장 15세기 봉건통치체제의 재편성 1592-1598년 임진조국전쟁 제1절 중앙집권적봉건통치체제의 재편성 제2절 15-16세기 경제의 발전 제3절 봉건적 착취와 억압의 강화 제4절 각지 농민들의 투쟁 제5절 일본 및 녀진의 침입을 쳐물린 인민들의 투쟁 제6절 1592-1598년 임진조국전쟁 제7절 15-16세기의 문화
제9장 16세기 대토지소유의 발전 1592-1598년 임진조국전쟁 제1절 대토지소유발전에 따르는 봉건적착취의 강화와 농민폭동 제2절 지배계급내부모순의 격화 제3절 1592-1598년 임진조국전쟁 제4절 16세기의 문화	
제10장 17세기 상품화폐관계의 발전 제1절 17세기전반기 대내외경제 제2절 17세기후반기 생산의 복구와 상업의 발전 제3절 대동법의 실시와 금속화폐의 전국적유통의 시작 제4절 17세기의 문화	제8장 17세기 대내외경제와 봉건적 착취관계의 변화 제1절 17세기중엽 국내형편과 대외관계의 격화 제2절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제3절 17세기이후 봉건착취관계에서의 변화 농민폭동의 양상 제4절 17세기의 문화

제11장 18세기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 실학의 발전 제1절 18세기전반기의 사회경제형편 과 계급적모순의 장성 제2절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 제3절 18세기의 문화	제9장 상품화폐관계의 발전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제1절 농업과 수공업의 발전 제2절 상품화폐관계의 발전 제3절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 제4절 봉건적 억압과 착취를 반대 한 인민들의 투쟁 제5절 18세기의 문화
제12장 19세기초, 19세기중엽 봉건제도의 위기와 농민폭동의 양양 제1절 봉건적제모순의 장성 제2절 1811-1812년 평안도농민전쟁 제3절 봉건적착취의 강화와 1862년 진주농민폭동 제4절 19세기60년대 봉건국가의 대내외정책과 그 본질 제5절 19세기초, 19세기중엽의 문화	제10장 19세기초 봉건적위기와 농민 폭동의 양양 제1절 19세기초의 정세 제2절 1811-1812년 평안도농민전쟁 제3절 봉건적착취의 강화와 1862년 농민폭동 제4절 구미자본주의 침략선들의 연 해침입 제5절 19세기 전반기의 문화

위의 표를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두 책은 1977년판에서 12장이던 것이 1991년판에서 10장으로 정리된 것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같은 시대구분하에서 서술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물론 각 장의 내용구성도 거의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 이 두 책이 15년을 간격으로 편찬되었으면서도 거의 동일한 체제, 동일한 내용을 서술되었다는 점은 단지 1991년판의 『조선통사』(상)이 1977년판의 부분개정판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앞서 검토한 것처럼 1979-1980년에 나온 방대한 『조선전사』 조차도 분량만 많을 뿐 그 체제나 기본적인 내용이 『조선통사』와 일치한다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위의 표에서 살필 수 있는 두 책의 차이점이 없는 것은 아니며, 이 차이점을 그런대로 어떤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하여는 이 글

의 후반부에서 다시 논의 할 것이다.

III. 개항이후 1945년까지의 역사서술 체계

1958년판 『조선통사』(하)는 근대사회편과 현대편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조선통사』(상)이 원시사회, 노예소유자사회, 봉건사회의 세 편으로 되어 있으니, 『조선통사』는 모두 5편으로 되어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19세기 후반의 개항 이후 1945년 해방 때까지를 근대사회로 보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1958년판의 『조선통사』(하)는 모두 제13장에서 21장까지 모두 9장으로 되어 있다. 제13장은 “외래 자본주의의 침입을 반대한 조선인민의 투쟁, 「강화도조약」의 체결, 조선의 개항”이라는 제목 아래, 1960-70년대의 대원군의 개혁과 신미양요 및 병인양요, 그리고 강화도조약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하여 북한에서는 대원군의 개혁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명치유신 이후의 일본의 구라파식 개화를 좋아하지 않던 대원군은 일본과의 국교와 통상을 거의 단절하다싶이 하고 이에 대비코저 동래성 일대의 방비를 강화하였다. 또 다른 편으로 1864년부터 시작된 짜리 로씨야의 수차에 걸친 국교통상요구도 역시 거부하고 경흥 일대의 북방경비를 또한 강화하였다. 대원군의 이같은 국방강화정책은 물론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고 또 그가 추구하던 기본목적은 달랐으나 당시 외래 침략세력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애국적 투쟁과 합치되어 일정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¹⁴⁾

물론 대원군의 개혁에 대한 위의 평가는 국방강화정책에 제한된 것

14) 『조선통사』(하)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58), p.16.

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비롯한 대내외적 정책들에 대하여도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1866년의 병인양요, 1871년의 신미양요로 잘 알려진 불란서 및 미국 함대의 침입을 물리친 사건에 대하여,

미국인들도 불란서인들과 같이 조선인민을 용이하게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역시 40일간이나 조선에 와서 온갖 흉계를 다하다가 마침내 . . . 다시 청국 치프로 패퇴하였다. . . 불미 자본주의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가열한 투쟁에서 조선인민들은 오로지 그들의 고상한 애국심으로써 온갖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조국의 자주 독립과 영예를 고수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끝에 빛나는 승리를 얻었다.¹⁵⁾

라고 특별히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강압에 의한 강화도 조약의 체결로 인하여 “봉건통치층들이 몽상하던 봉건조선의 세계와의 고립도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사회는 봉건사회로부터 점차 반봉건반식민지사회로 전변되기 시작하였다.”¹⁶⁾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들은 약 1500년 이상 계속되어 온 봉건사회를 이러 자본주의적 근대사회가 출현하는 대신에 반봉건반식민지사회로 전환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반봉건반식민지사회란 남한에서 흔히 개화시대라고 부르는 때이다.

이어서 제14장 ‘개항 직후 조선의 사회경제적 형편, 임오군변과 갑신정변’에서는 개항 이후 가장 적극적인 개화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는 갑신정변을 주로 다루었다. 북한에서 개화기를 반봉건반식민지사회로 규정한 까닭은 1884년에 발생하였던 갑신정변에 대한 평가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북한에서는 갑신정변이 실패하였던 첫째 원인을 “당시 조선의 낙후한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이 개혁운동을 능히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사회혁명역량이 극히 미약”하였기 때문으로 진단하였다. 실패의

15) 앞의 책, p.23.

16) 앞의 책, p. 29.

둘째 원인은, “이 개혁운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래로부터 인민대중의 혁명역량에 의거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셋째로는 “개화과의 계급적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급속하게 변천하는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결여 되어 있었으며, “또 조급하게 주로 외래침략세력인 일본세력에 의거하여” 정변을 일으키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갑신정변 “당시의 낙후한 사회경제적 형편에서 봉건조선을 처음으로 불철저하게나마 근대국가로 개변시켜 보려고”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나아가 이는 “그후 조선인민들을 각성시켜 조선인민들로 하여금 자주적인 민족정신과 애국적인 신문화 계몽운동을 대두케한 데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였다.¹⁸⁾

제15장 ‘1885년-1890년대초, 조선의 사회경제적 형편과 갑오농민전쟁’에서는 갑오농민운동을 크게 다루고 있으며, “이 운동은 당시 와해과정을 밟고있던 조선봉건체제의 기반을 더욱 뒤흔들여 그 붕괴를 촉진시키고, 새로운 방향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일층 북돋아줌으로써 조선사회 발전에 강력한 추동을 주었어으며 특히 그후 조선인민의 반일의병투쟁 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서술하였다.

제16장 ‘19세기말-20세기초 조선의 사회경제적 형편, 일제의 조선강점정책을 반대한 반일의병투쟁’에서는 갑오농민운동 이후 일제의 통감정치시대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그들도 19세말에서 20세기초까지의 문화운동을 ‘애국문화계몽운동’이라 이름하고 특별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어서 제17장 ‘1910년대 일제의 식민지통치 하의 조선, 초기의 반일독립운동(1910-1919)’에서는 일제의 식민지배가 시작된 이후의 독립운동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제18장 ‘식민지 산업의 발전과 노동운동의 창성(1920-1930)’에서는 1920년대 이후 소위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보

17) 앞의 책, pp. 47-48.

18) 앞의 책, p. 48.

급되어 가면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조선공산당의 창건과 그 해산의 전말을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제19장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단계로의 발전, 항일무장투쟁의 개시,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에서는 조선공산당의 창건 이후 항일무장투쟁이 더욱 활기를 띠었으나, 특히 1934년-1935년 사이에 항일투쟁이 전개되어 감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되자 항일투쟁을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제20장 '항일무장투쟁의 확대, 조국광복회의 결성, 혁명운동의 대중적 기반의 강화'와 제21장 '중일전쟁 이후시기의 항일무장투쟁'에서는 계속 조선인민혁명군의 활약으로 항일운동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드디어 소련군대에 의한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과 함께 조선인민혁명군이 조국으로 개선하게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서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1958년판 『조선통사』(하)의 제4편 근대사회 부분은 개항에서 해방까지의 시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해방이후 부터를 현대사회로 구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87년판 『조선통사』(하)는 위에서 살펴본 1958년판 『조선통사』(하)와는 그 내용이 무척 달랐다. 1987년판에 따르면 개항이후 해방까지의 시기를 모두 3편으로 나누었다. 그 제1편은 “근대 반침략반봉건투쟁과 민족해방운동”, 제2편은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을 위한 투쟁”, 제3편은 “항일혁명투쟁”으로 되어 있으며, 제4편에서 제8편까지는 해방이후의 현대사를 서술하였다.

1958년판에서 『조선통사』(하)가 근대사회란 이름으로 개항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보다 30여년이나 뒤에 나온 1987년판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시대구분의 기점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그 세부적인 시대구분과 역사서술의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1987년판의 제1편 “근대 반침략반봉건투쟁과 민족해방운동”은 제1장 ‘19세기 60-80년대 구미열강, 일본의 침략을 반대한 조선인민의 투쟁’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개항이후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투쟁사를 무엇보다도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신미양요, 병인양요와 같은 서구열강과의 항쟁사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이 대목에서 이들이 인용한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어록에 잘 나타나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첫 침략기도에서부터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신미양요를 말함:필자주)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 만행을 끊임없이 감행하였으며 조선인민앞에 영원히 씻을수 없는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¹⁹⁾

즉 이들은 1866년의 General Sherman호 사건과 신미양요를 들어 19세기말 당시 미국을 위시한 서구열강의 침략을 격퇴했다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 대한 적대적 표현이 매우 시사적이란 점도 주목된다.

그 제2장은 ‘조선에서의 부르조아개혁운동, 각계각층 인민들의 반침략반봉건투쟁의 양양’이란 제목으로 1884년의 갑신정변을 비롯하여 1894년의 갑오개혁까지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이들은 개항이후 우리나라에서의 개화운동을 크게 갑신정변, 갑오농민전쟁, 갑오개혁의 세부분으로 정리하였다. 이들은 갑신정변을 개항이후에 형성된 개화파가 벌인 “부르조아개혁운동”이라 이름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이 개화운동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갑오농민운동에 대하여는 매우 적극적으로 그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특별히 고부에서 농민의 봉기가 일어난 것을 “농민전쟁의 시작”이라 하면서, 이 “농민전쟁”의 의의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 부분에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어록을 인용해 두었다.

19) 『조선통사』 (하) (사회과학출판사, 1987), p. 9.

1894년에는 전라도 농민들이 이 봉건통치배들의 악정을 반대하여 농민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때에도 농민들을 비롯하여 애국적 군인, 선비들은 통치배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을뿐아니라 국내의 혼란된 기회를 리용하여 이어들어온 일본침략군을 맞받아 피어린 투쟁을 벌였습니다.²⁰⁾

그리고 “나라의 식민지화의 위기를 극복하며 일제의 강점책동을 반대한 투쟁”이라한 제3장은, ‘중일전쟁후 나라의 식민지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 ‘일제의 조선강점책동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등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즉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이에 대한 항쟁사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1890년대 말에서 1910년 한일합방 이전까지의 역사는 모두 의병투쟁의 역사로 채웠던 것이다. 그리고 “1910년 망국당시를 전후하여 근 10년동안이나 계속된 반일의병운동은 일본강도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는 김일성의 말을 인용하여 구한말의 의병운동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당시의 항일운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침략자들과 매국노들을 처단하기 위한 투쟁은 국내외에서 연속벌어졌다. 열혈청년들의 애국적거사는 국내외반동들에게 타격을 주고 인민들의 애국심과 반일투지를 키우는데 적지않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개인테로의 방법으로서는 국권을 회복할수 없었다. 이러한 투쟁은 정확한 로선과 전략전술에 기초하여 반일민족해방운동이 령도될 때에만 국권을 회복할수 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겼다.²¹⁾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반일운동은 그 뜻은 좋았으나 조직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고 평가함으로써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대중운동으로 방향을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미리 강조한 것이

20) 앞의 책, pp. 26-27.

21) 앞의 책, p. 57.

었다.

1987년판 『조선통사』(하)의 제4장은 “강점초기 반일독립운동. 대중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이라는 제목으로 1910년 합방으로부터 1920년대 초기 공산주의운동이 발생하던 때까지를 다루고 있다. 이 대목에서 그들은 3.1운동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3.1운동이라 하지 않고 3.1봉기라 하고 있으며 “3.1봉기의 기본요인은 일제와 조선인민사이의 민족적 및 사회적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다.²²⁾ 그리고 나서 3.1봉기에 대한 김일성의 어록을 다음과 같이 길게 인용하였다.

1919년 3월 1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 <조선독립 만세!>의 구호를 소리높이 웨치면서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전민족적투쟁을 전개한 날이며 우리 민족이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준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 민족이 자기의 자유를 위하여 고귀한 피를 흘린 날입니다.²³⁾

그러나 북한에서 3.1운동을 이처럼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 운동이 실패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 지도부의 노선이 확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았으며, 이 3.1운동의 실패는 지난 몇십년간 전개되어온 부르조아 민족운동의 쇠퇴와 몰락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김일성은 “3.1운동이후 자산계급출신의 민족운동지도자들은 그들의 정치적 동요와 일제의 매수정책으로 하여, 특히는 근로대중의 혁명적진출에 겁을 먹은 나머지 대부분 원수들에게 투항변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애국지사>로부터 조선민족을 통치하는 원수들의 충실한 앞잡이로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였으며, 새로운 민족운동은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이 “대중을 선진사상으로 깨우치고 묶어세우는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22) 앞의 책, p. 71.

23) 위와 같음.

로 밀고나가도록” 촉구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찾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²⁴⁾

그러므로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의 방향전환을 위한 투쟁”이라 제목한 제2편에서는 본격적으로 공산주의운동이 우리 민족운동의 주류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서술해 나갔으며, 그 과정에서는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의 영도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는 것이다. 즉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아버님이시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의 탁월한 지도를 받게 되면서부터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자기 발전의 옳은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주장한다.

『조선통사』에 의하면, 김형직은 “1913년 봄 만경대 순화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항상 “활달한 필치로 <지원(志遠)>이라는 족자를 써서” 걸어 놓았다는 것이다.²⁵⁾ 그래서 북한에서는 김형직의 사상을 “지원사상”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김형직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김일성의 어록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아버지는 학교와 우리 집에 <지원>이라는 두 글자를 붓으로 크게 써붙이시었습니다. <지원>이란 글자 그대로 뜻을 크게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이 <지원>의 사상으로 독립운동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을 교양하였고 그들을 혁명투쟁의 길로 이끌어 주시었습니다.²⁶⁾

이처럼 본격적인 항일운동이 김형직의 주도로 방향을 잡게되자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의 방향전환을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투쟁력량을 마련하기 위한 조선국

24) 앞의 책, p. 119.

25) 앞의 책, p. 99.

26) 위와 같음.

민회의의 활동"이 펼쳐졌으며, "혁명적무장활동을 조직전개하기 위한" 활동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1987년판 『조선통사』(하)는 제3편의 제목을 "항일혁명투쟁"이라 하고, 조선공산주의 운동의 역사를 주축으로하는 역사 서술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조선공산주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이 시기를 "새 력사의 개척"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 운동의 핵심은 '타도제국주의동맹'이었음을 김일성의 말을 빌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가 1926년에 조직한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위조직이었으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조직이었습니다.²⁷⁾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김일성이 운동의 중심적 인물이 되었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26년 12월초 화성의숙을 중퇴하시고 당시 만주에 사는 조선사람들의 정치적중심지의 하나였던 길림으로 혁명활동의 무대를 옮기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이다.²⁸⁾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는 "새세대 공산주의대오의 육성" 필요함을 깨닫고 1927년 8월 28일 길림에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창립하였다. 그리고 그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결성을 선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조선통사』에는 기록되었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을 골간으로하고 여러 혁명조직들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로동청년, 농민청년, 학생청년들로 무어진 반제민족해방과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조직입니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조선청년공산주의자들의 선봉대로서 각계 각종 청년단체들과 소년단체들을 조직지도하는 전위조직입니다.²⁹⁾

27) 앞의 책, p. 137.

28) 앞의 책, p. 138.

29) 앞의 책, pp. 141.

제3편 “항일혁명투쟁”의 제1장 제3절은 “주체사상의 창시, 주체적인 혁명로선의 제시”라는 제목을 달고 김일성에 의한 주체적인 혁명로선이 제시되었음을 서술하였다. 항일민족운동이 새로운 전기를 맞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920년대 후반기에 등장하는 “로동계급의 새로운 혁명사상의 창시 문제”가 가장 절박한 시대적 요구였다고 하였다.³⁰⁾ 이에 대하여 『조선통사』는,

조선력사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사람들속에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남난 쳐다보는 사대주의사상이 뿌리깊이 박혀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방해하고있었다. 그리고 식민지반봉건사회의 조선에서 조선혁명은 반제적과업과 반봉건적과업을 동시에 해결해야 할 어렵고 복잡한 혁명이었으며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면서 강대한 일제와 싸워야 하는 류례없이 간고한 혁명이었다.³¹⁾

고 서술하고 있다. 바로 이런 필요성 때문에 김일성은 “우리는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주적으로 혁명의 진로를 개척하고 투쟁을 벌려나가는 과정에 새로운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³²⁾

이러한 주체사상의 확립으로 “항일무장투쟁의 개시.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발전”이 가능했음을 제3편의 제2장에서 서술하였다. 즉 본격적인 항일운동은 1930년 7월 6일 조선혁명군이 결성됨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이며, 이는 곧 김일성의 영도하에 주체사상으로 뭉쳤을 때 비로소 항일운동이 제대로 전개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932년 4월 25일에는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되었으며, 김일성은 이의 의미를 이렇게 강조하였다고 적고 있다.

30) 앞의 책, pp. 146.

31) 앞의 책, p. 147.

32) 위와 같음.

반일인민유격대는 일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고 나라와 인민을 사랑 하는 노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서 조직되었으며 진정으로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혁명적인 무장력입니다. 인민유격대의 목적과 사명은 조선에서 일제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조선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달성하는것입니다.³³⁾

이어서 1987년판 『조선통사』(하)에서는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특별히 강조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됨으로써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에서 처음으로 일제침략무력을 때려눕힐수 있는 상비적혁명무력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자기의 진정한 혁명군대를 가지려던 우리 인민의 절절한 민족적숙원이 비로소 실현되게 되었다. 유격대가 창건됨으로써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은 가장 높은 단계, 조직적인 무장투쟁단계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당조직건설사업과 반일민족통일저년운동을 비롯한 반반적조선혁명을 즐기치게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었다. 실로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은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사변이었다.³⁴⁾

이처럼 인민유격대가 상비군적 성격을 가진 조직이었다면 남은 것은 국가조직일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이들은 해방지구에서 “군사정치적준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들이 말하는 “해방지구형태”는 “혁명정권과 혁명조직이 있는 근거지”를 의미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내부에서도 “좌경적 쏘베트로선을 주장하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이 있었지만, 1933년 이런 좌경적편향이 극복되고 “두만강연안의 거의 모든 유격구들에 인민혁명정부가 세워졌다.”고 하였다.³⁵⁾ 그리고 1934년 3월 9일 마침내 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

33) 위의 책, p. 171.

34) 앞의 책, p. 173.

35) 앞의 책, p. 185.

명군"으로 개편하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인민혁명군은 대규모의 춘기공세를 펼쳤다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1945년 무렵에는 김일성의 영도아래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이 강화되고, 마침내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1987년판 『조선통사』(하) 개항이후 해방까지의 서술체계는 1983년판 『현대조선력사』의 동일부분과 너무나 흡사하다. 이 책은 모두 3부로 나뉘어 있는데, 그 1부에서는 20세기초 초기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던 때로부터 해방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2부와 3부는 해방이후 책이 만들어지던 때까지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통사』(하)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식민지시대의 역사 서술체계는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제 여기서 살펴본 세 권의 북한역사서의 체계를 비교해 보기 위하여 다음의 <표 2>를 만들었다.

<표 2> 북한 역사서들의 개항이후 해방까지의 서술체계비교표

1958년 『조선통사』(하)	1987년 『조선통사』(하)	1983년 『현대조선력사』
제4편 근대사회 제13장 외래자본주의의 침입을 반대한 조선인민의 투쟁, 「강화도조약의 체결, 조선의 개항 제1절 19세기 60-70년대의 국내외정세, 대원군의 대내외 정책 제2절 불미함대의 침입과 그 격퇴 제3절 일본자본주의의 조선침략 개시, 강화도조약의 체결과 조선의 개항	제1편 근대 반침략반봉건 투쟁과 민족해방운동 제1장 19세기 60-80년대 구미열강, 일본의 침략을 반대한 조선인민의 투쟁 제1절 19세기 중엽 조선의 사회경제형편 제2절 구미자본주의열강의 침입과 그 격퇴 제3절 인민대중의 반일 투쟁과 반봉건적진출	

제14장 개항 직후 조선의 사회경제적 형편, 임오군변과 갑신정변 제1절 개항직후 조선의 사회경제적 형편, 임오군변 제2절 만청세력의 침투, 일본의 조선침략 강화 제3절 개화사상의 대두와 갑신정변	제2장 조선에서의 부르주아개혁운동, 각계각층 인민들의 반침략반봉건투쟁의 양양 제1절 갑신정변(1884년 부르주아개혁)	
제15장 1885-1890년대초 조선의 사회경제적 형편과 갑오농민전쟁 제1절 1885-1890년대초 조선의 사회경제적 형편과 각지농민폭동의 양양 제2절 갑오농민전쟁의 폭발, 농민전쟁의 확대, 집강소의 설치 제3절 일본군의 무장간섭에 의한 농민전쟁의 실패, 소위 갑오개혁의 실시	제2절 갑오농민전쟁 제3절 갑오개혁(1894년 부르주아개혁)	
제16장 19세기말-20세기초 조선의 사회경제적 형편, 일제의 조선강점정책을 반대한 반일의병투쟁 제1절 갑오농민전쟁 후 조선의 국내외 정세, 반일의병투쟁의 개시 제2절 노일전쟁과 일제의 조선강점정책의 노골화, 을사보호조약의 체결 제3절 일제의 통감정치하의 조선의 사회경제적 형편, 일제의 조선강점정책을 반대한 반일의병투쟁 제4절 19세기말-20세기초 애국문화계몽운동	제3장 나라의 식민지화의 위기를 극복하며 일제의 강점책동을 반대한 투쟁 제1절 중일전쟁후 나라의 식민지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 제2절 일제의 조선강점책동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제17장 1910년대 일제의 식민지통치 하의 조선, 초기의 반일독립운동(1910-1919) 제1절 일제의 헌병경찰적 무단정치와 조선의 사회경제적 형편 제2절 일제의 조선강점 초기의 반일독립운동 제3절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의 승리와 조선에서의 3.1운동	제4장 일제강점후 반일독립운동. 대중운동과 초기 공산주의운동 제1절 강점초기 반일독립운동. 생존의 권리를 위한 투쟁 제2절 3.1분기. 부르조아 민족주의운동의 종말	제1편 합일혁명투쟁 제1장 부르조아민족운동 시기의 종말, 초기공산주의 운동 제1절, 20세기초엽 조선의 사회경제형편 제2절. 민족주의운동의 쇠퇴와 공산주의운동의 발생, 종파의 해독적 작용
제18장 식민지 산업의 발전과 노동운동의 성장(1920-1930) 제1절 1920년대 조선의 사회경제적 형편 제2절 맑스-레닌주의의 보급,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성장 제3절 조선공산당의 창건과 그의 해산 제4절 1929-1930년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새로운 양상	제3절 1920년대 전반기 대중운동. 초기공산주의운동과 그 제한성 제5장 근대문화 제1절 교육과 과학기술 제2절 문학과 음악	제2장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출발 제1절 반일민족해방운동의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한 투쟁 제2절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 세대의 공산주의자들 제3절 주체사상의 창시, 주체적 혁명노선 제4절 주체형의 첫 당조직의 결성, 무장투쟁의 준비
제19장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단계로의 발전, 항일무장투쟁의 개시,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 제1절 1931-1936년 조선의 사회경제적형편 제2절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지도 하에 항일무장투쟁의 개시, 유격근거지-해방지구의 설치 제3절 항일무장투쟁의 발전,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 제4절 항일무장투쟁 첫 시기의 노동운동과 농민운동(1931-1934)	제2편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의 방향전환을 위한 투쟁 제1장 조선국민회의 결성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추진 제1절 조선국민회의 결성 제2절 조선국민회에 의한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적극적 추진 제2장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의 방향전환을 위한 투쟁 제1절 새로운 투쟁력량을 마련하기 위한 조선국민회의 활동 제2절 혁명적무장활동을 조직전개하기 위한 조선국민회의 투쟁 제3장 교육과 시문학 제1절 교육 제2절 시문학	제3장 항일무장투쟁의 개시, 무장투쟁의 첫단계 제1절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 제2절 두만강연안유격근거지의 창설과 그 공고화 제3절 혁명조직들의 확대 제4절 유격대오의 성장과 무장투쟁의 강화 제5절 무장투쟁의 영향 밑에 인민대중의 반일 투쟁의 강화발전 제6절 조선인민혁명군의 광활한 지대로의 진출

제20장 항일무장투쟁의 확대, 조국광복회의 결성, 혁명운동의 대중적 기반의 강화 제1절 조선인민혁명군의 광활한 지역으로의 진출, 조국광복회의 결성 제2절 조선인민혁명군의 국경지대로의 진출, 장백근거지의 창설 제3절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발전과 혁명운동의 대중적 기반의 확대	제3편 항일혁명투쟁 제1장 새 력사의 개척,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준비 제1절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 선언, <트.스>의 결성 제2절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창립. 새세대공산주의대오의 육성 제3절 주체사상의 창시. 주체적인 혁명로선의 제시 제4절 첫 당조직의 결성과 무장투쟁의 준비	제4장 항일무장투쟁의 확대전, 무장투쟁의 물제단 제1절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침 제2절 조국광복회창건과 그 10대강령 제3절 백두산근거지의 창설 제4절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확대와 당건설 사업의 적극적 추진 제5절 보천보전투 제6절 중일전쟁발발후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의 강화, 조선인민혁명군의 집중 학습과 훈련 제7절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고난의 행군과 무산지구진출 제8절 백두산동북부에서의 대부대선회작전
제21장 중일전쟁 이후시기의 항일무장투쟁 제1절 1937-1945년 조선의 사회경제형편 제2절 항일무장투쟁의 확대,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부대 유격작전 제3절 제2차세계대전시기의 조선인민의 반일혁명투쟁 제4절 소련군대에 의한 일본제국주의의 패망,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개선,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의의 제5절 일제통치 하의 조선의 문학예술	제2장 항일무장투쟁의 개시.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의 발전 제1절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전략적 방침. 반일인민유격대창건 제2절 두만강연안유격근거지창설. 인민혁명정부의 수립과 민주주의적개혁의 실시 제3절 통일적인 당조직지도체계의 수립. 대중당체제의 조직확대 제4절 두만강연안 유격근거지를 위한 투쟁 제5절 조선혁명의 주체적립장 고수. 조선인민혁명군의 광활한지대로의 진출 제6절 무장투쟁의 영향 밑에 인민대중의 반일투쟁의 전개	제5장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 항일무장투쟁의 셋째단계 제1절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한 투쟁방침 제2절 광활한 지대에서의 소부대활동 제3절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정훈련 제4절 전인민적 항쟁태세의 강화

	제3장 무장투쟁의 확대발전 전반적반일혁명운동의 앙양 제1절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앙양을 위한 전략적 방침. 조국광복회창건 제2절 백두산근거지창설. 무장투쟁의 확대강화 제3절 조국광복회 조직망의 급속한 확대. 당조직건설사업의 적극 추진 제4절 대부대에 의한 국내 진공작전. 역사적인 보천보전투 제5절 중일전쟁발발후 조선인민혁명군의 적배후교란작전. 김중군정학습 제6절 고난의 행군과 무산지구진공작전 제7절 백두산동북부 넓은 지역에서의 대부대선회작전 제8절 무장투쟁의 영향밑에 인민대중의 반일투쟁의 강화	제6장 항일무장투쟁의 위대한 승리 제1절 최후공격작전 제2절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의의
	제4장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의 성취 제1절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한 전략적방침. 소부대군사정치활동 제2절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정훈련의 강화 제3절 일제를 반대하는 전인민적항쟁태세의 강화 제4절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 제5장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문화 제1절 혁명적교육 제2절 문학과 예술 제3절 혁명적출판물	

이상에서 북한의 세종류의 북한역사서에서 개항이후 일제시대까지의 서술체계를 비교하여 보았다. 위의 <표 2>를 통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1983년판 『현대조선력사』와 1987년판 『조선통사』(하)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체계로 이 시기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현대조선력사』는 현대사만을 서술한 것이기에 3.1운동 이후부터 역사서술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개항이후 개화기, 일제초기까지는 이 책의 서술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3.1운동 이후, 즉 1920년대 이후 해방까지의 역사서술체계는 1987년판 『조선통사』(하)의 동일 부분과 거의 일치한다.

1987년판 『조선통사』(하)에서는 3.1운동을 기본적으로 부르조아민족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실패한 것으로 단정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항일운동은 조선공산주의 운동의 시작과 더불어 발전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체계는 『현대조선력사』의 서술체계와 그 대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항일혁명투쟁, 혹은 항일무장투쟁의 시대로 규정한 것도 두 책이 모두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 두 책에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에 있어서 김일성과 주체사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동일한 체계를 지니고 있다. 그런 점에서 1983년과 1987년에 각기 출판된 이 두 책의 역사서술은 차이점이 거의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1980년대에 있어서 북한의 역사학은 무엇보다도 김일성과 주체사상이 항일무장투쟁사의 중심내용이었음을 강조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김일성의 영도에 의해 민족의 해방을 주체적으로 맞게 되었음을 정당화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곧 앞으로 살펴볼 해방 이후의 역사에서 북한정권의 역사적 정당성을 합리화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이었다. 모든 것을 이처럼 김일성과 주체사상에 연결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책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세계사적인 흐름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일본제국주의의 패전이 미국

과 소련등 당시 연합군의 군사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인데도 그들은 철저하게 이러한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을 배제하고, 오직 김일성의 역할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1980년대로 오면서 북한이 더욱 폐쇄적인 사회로 변모하였으며, 외부세계와 철저하게 단절된 사회로 되고 말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의 <표 2>에서 1958년판 『조선통사』(하)를 보면 1980년대의 역사서술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물론 1958년판의 제17장 이하에서도 조선공산주의 운동이 모든 민족운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서술한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58년도의 역사서술에서는 김일성과 주체사상이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958년의 경우 제20장에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들은 인민혁명군의 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혁명운동이 대중적 기반을 강화해 가는 과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말하자면 제19장 제2절의 제목에서 보듯이 이 때에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항일민족운동”이 시작되고 확대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1987년판의 제3편에서는 주체사상이 창시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혁명로선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항일무장투쟁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1958년판의 제21장에서는 1930년대 중반이후 조선인민혁명군의 유격작전도 유효하였음을 강조하였지만, 동시에 소련군대에 의한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에 대하여도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87년판에서는 소련군의 역할과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하여 일체의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1958년에서 1987년 사이에 북한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욱 폐쇄적인 방향으로 변하여 갔다는 사실이 이런 역사서술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IV. 해방이후 현대사의 서술체계

북한의 역사서는 해방 이후의 현대사를 특별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전체 서술에서 현대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다. 또한 모든 역사서에서 현대사를 1945년 8월 15일 해방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1958년판 『조선통사』(하)에서는 제22장에서부터 27장까지를 제5편 “현대사회”라는 제목으로 묶어 해방 이후의 현대사를 서술하고 있다. 제22장은 “위대한 소련군대에 의한 조선해방, 북조선 민주기지 창설 (1945. 8.15-1947.2)”이라는 제목이 말해 주듯이, 소련군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1945년 8월 15일 조선인민은 위대한 소련군대에 의하여 장구한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소련군대에 의한 조선해방은 조선인민의 역사발전에 새 기원으로 되었다. 해방된 조선인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적으로 조성된 유리한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길에 들어섰다.³⁶⁾

고 서술할 정도로 해방과정에서의 소련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남한에 진주한 미국에 대하여는 “미군이 남조선에 상륙한 첫날부터 실시한 식민지 예속화정책의 기본방향은 정치적으로는 온갖 민주주의적 애국적 역량을 탄압말살하는 한편 자기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도움을 줄 온갖 매국적 반동세력을 조장 비호하는 데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조선의 민족경제를 파괴하여 자기들의 상품판매시장으로 원료공급지로 만드는 데 있었으며, 군사적으로는 조선을 아세아대륙 침략의 교두보로 만드는 데 있었다.”³⁷⁾ 서술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

36) 『조선통사』(하)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58), p. 287.

37) 앞의 책, pp. 290-291.

면 소련군에 의한 북한의 해방은 진정한 해방이었으며, 남한은 일제대 신 미국에 의해 식민지적 상태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남조선의 진정한 해방은 지연되었으며, 그 때문에 북조선에서만 토지개혁을 위시한 제반 민주개혁이 실시될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제23장에서는 “민주기지의 강화발전과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창건(1947.2-1948.9)”이라는 제목 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들은,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조종 하에 있는 남조선의 민족반역자들은 전체 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을 무시하고 조선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3국외상회의 결정을 파탄시켰으며 결국은 ‘5.10단선’을 강행하여 남조선 괴뢰단독정부를 조직하려 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앞에는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위기가 더욱 절박하여갔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조선인민들은 노동당과 인민전권의 지도 하에 조국에 조성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결정적 구국대책으로서 자기들이 갈망하여 마지 않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는 길에 들어섰다.³⁸⁾

하여, 남한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는 진정한 통일정부를 세우기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1948년 8월 2일 남북조선 노동당연합 중앙위원회를 창설하고 김일성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³⁹⁾ 그리고 동년 8월 25일에는 “역사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이 선거에는 “유권자 총수 99.97%가 참가하였으며 그중 98.49%가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에서 추천한 공동 입후보자들에게 찬성투표”를 하였다는

38) 앞의 책, p. 354.

39) 앞의 책, p. 355.

것이다. 그리고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헌법이 채택되자 북한인민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에 정권을 이양하였던 것이다.

1958년판 『조선통사』(하)의 제24장은 “공화국 창건 후 남북조선의 정치정세와 평화적 조국통일추진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1948.9-1959.6)”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정권의 창건후 한국전쟁이 일어날 때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 24장에서 그들은 1948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고, ‘1949-1950년 2개년 인민경제계획’을 채택하여 경제가 크게 성장하였음을 서술하고, 각종의 경제통계를 제시하였다. 반면에 남조선에서는 미국과 맺은 ‘매국적 경제협정들의 체결’로 인하여 남조선 경제가 파멸에 이르렀다고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평화적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으나, ‘남조선에서의 미제와 이승만도당의 전쟁준비’가 강화되어 결국 남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한 소위 “조국해방전쟁”이 불가피하였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의 제25장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1950.6-1953.7)”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전쟁,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조국해방전쟁”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이 전쟁은 “미제의 지시에 따라 그 주구들은 1950년 6우리 25일 이른 새벽에 괴뢰 ‘국방군’을 동원하여 북반부를 침공하였다.”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⁴⁰⁾ 그러면서 이 전쟁의 역사를 길게 서술하였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노동당원들은,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전선과 후방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자기의 실제적인 활동과 투쟁을 통하여 인민의 이익에 충실한 진정한 애국자라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인민대중의 더욱 증대되는 신뢰와 지지를 받게 되었으며 바로 이것이 진격과 후퇴 그리고 전선의 고착 등 모든 복잡한 전쟁행정에서 우리를 불패의 역량으로 만들었으며 빛나는 역

40) 앞의 책, p. 394.

사적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하였다.⁴¹⁾

고 주장하고 있다.

제26장은 “전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과 북반부에서 인민 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의 승리적 완수(1953.8-1956.12)”라하여 전후의 경제복구 정책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마지막 장인 제27장은 “해방 후 인민교육 및 과학문화예술의 발전 (1945.8-1956)”이라는 제목으로 해방에서부터 1956년까지의 교육과 과학, 문학, 예술의 발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 책이 1958년에 출판되었는데, 1956년까지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1987년판 『조선통사』(하)의 현대사 서술체계는 1958년판의 그것과는 현격하게 다르다. 이 책의 현대사 부분은 제4편에서 8편까지 모두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편 “새 조선 건설”에서는 1958년판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방 직후 북한정권의 성립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1958년판과는 달리 이 모든 과정이 김일성의 영도로 이루어 졌음을 다음과 같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이 나아갈 길은 참다운 민주주의인 진보적민주주의의 길이라고 하시면서 이 길만이 우리 인민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 주며 나라의 완전자주독립을 보장하여 줄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새 조선 건설을 위하여 우리 인민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구미자본주의국가의 <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사회주의국가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본딴것도 아니였다. 그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 놓여있는 조선의 현실에 가장 알맞는 새형의 민주주의였다.⁴²⁾

1958년판의 『조선통사』(하)에서 쏘련군의 기여와 사회주의국가의 건

41) 앞의 책, p. 461.

42) 『조선통사』(하) (사회과학출판사, 1987), p. 304.

설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에 비하여, 1987년판에서는 김일성 개인의 영향과 북한식 사회주의의 건설이라는 점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러한 건국과정을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탄생”이라고 하여, 이 때부터 벌써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고유의 입장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제5편 “조국해방전쟁”에서는 한국전쟁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전쟁은 제국주의적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자유와 독립,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반제민족해방전쟁이며 남조선에서 미제와 괴뢰도당의 반동통치제도를 뒤집어엎고 인민들에게 참된 삶을 안겨주기 위한 치열한 계급전쟁이었다. 또한 이 전쟁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을 반대하고 아세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었다.⁴³⁾

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전쟁의 전과정이 김일성의 빼어난 영도력으로 진행되어 승리를 쟁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6편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과 제7편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을 위한 투쟁”에서는 전후의 복구과정을 자랑스럽게 서술하면서, 북한에서의 주체사상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수한 사회경제적조건과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기성리론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가지고서는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옳게 해결할수 없었다.⁴⁴⁾

43) 앞의 책, p. 405.

44) 앞의 책, p. 533.

이처럼 북한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당면한 현실은 자본주의 세계와는 물론이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형편과도 판이하게 다른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현실을 북한고유의 이념으로 극복해야 됨을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의 필요성을 드러내려는 의도였다.

그리고 제8편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는 1980년대의 상황에서 북한은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체사상과 주체의 당 및 국가 건설리론”을 심화발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1980년대 이후 남한의 국력이 현격하게 성장하는 것에 비해 점차 북한 열세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그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목적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들이 내세우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이 통일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1983년판 『현대조선력사』에서는 1에서 해방전의 “항일혁명투쟁”을 서술한 다음, 해방 이후의 현대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즉 이 책의 제2부에서는 해방 직후 ‘조선인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과정과 그들의 소위 ‘조국해방전쟁’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제3부에서는 전후의 복구과정을 시작으로 하여 주체사상의 싹트기 시작하였으며, 제3부의 3장에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은 주체사상이 확립되는 과정과 일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1970년대를 거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제적 지위”가 강화되어 갔음을 서술하였다. 이 책은 1987년판 『조선통사』(하)보다 4년 앞서 서술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1970년대까지의 역사만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해방이후의 현대사를 서술하는 체계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상에서 세 권의 북한 역사서의 현대사 부분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

세 책의 목차를 비교하여 보기 쉽도록 다음의 <표 3>을 만들었다.

<표 3> 북한 역사서의 현대사 서술체계 비교표

1958년판 『조선통사』(하)	1987년판 『조선통사』(하)	1983년판 『현대조선력사』
제5편 현대사회 제22장 위대한 소련군대에 의한 조선해방, 북조선 민주 기지 창설 (1945.8.15.-1947.2) 제1절 해방직후의 조선선 의 정치정세 제2절 조선에서의 맑스- 레닌주의 당 창건 제3절 북조선 임시인민위 원회 수립 제4절 북조선에서의 제반 민주개혁의 실시 제5절 미제의 식민지 예 속화정책과 민주역량의 통 일단결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 노동당의 창건	제4편 새 조선 건설 제1장 새 조선 건설의 착 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의 완수 제1절 위대한 수령 김일 성동지의 조국개선, 새 민주 조선건설로선의 제시 제2절 주체형의 혁명적당 의 탄생, 북조선공산당 중앙 조직위원회 창설 제3절 북조선림시인민위 원회의 수립. 제반민주개혁 의 실시 제4절 공산당의 대중적당 으로의 발전 제5절 3대혁명의 개시 제6절 남조선에서 반미국 국투쟁의 양양	제2편 새 조국건설, 조국해 방전쟁 제1장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의 수행 제1절 해방후 조선의 정 치정세 제2절 주체형의 혁명적당, 공산당의 창건 제3절 인민정권의 수립

제23장 민주기지의 강화발전과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창건(1947.2-1948.9) 제1절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조직 제2절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의 실시와 1948년도 인민경제계획의 채택 제3절 미제의 민족분열정책의 노골화와 그를 반대한 조선인민의 투쟁 제4절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정책, 조선인민군 창건,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 제5절 4월 남북연석회의와 5.10단선 반대투쟁 제6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제24장 공화국 창건 후 남북조선의 정치정세와 평화적조국통일 추진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1948.9-1950.6) 제1절 공화국창건 후 그의 정치경제적 기초를 강화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 제2절 괴뢰정부 출현 후의 남조선 정세, 미제와 이승만도당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 제3절 민주역량의 통일강화와 평화적 조국통일 실현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 제4절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전쟁 도발준비	제2장 사회주의로의 과도기 첫시기 과업의 수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제1절 북조선인민위원회 수립, 첫 인민경제계획의 수행 제2절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준비사업 추진 제3절 정규무력건설, 조선인민혁명군의 조선인민군으로의 강화발전 제4절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 4월 남북연석회의 제5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과 그 위력의 강화 제6절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전쟁도발책동,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	제4절 민주개혁의 성과적수행 제5절 공산당과 다른 근로자당들의 합당 제6절 건국사상총동원운동 제2장 사회주의혁명단계로의 이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제1절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수립,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개시 제2절 인민경제의 부흥발전 제3절 민족분열의 위기의 격화, 4월남북연석회의 제4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제5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경제적 위력의 강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 제6절 미제와 남조선정권의 전쟁준비, 군사기지화정책의 강화 제7절 전쟁전야의 긴박한정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의 강화
	제3장 새 조선 건설시기 문화 제1절 교육과 과학기술 제2절 문학예술과 출판보도 제3절 보건과 체육	

제25장 자유와 독립을 위한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 (1950.6-1953.7) 제1절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개시, 조선인민군의 반공격, 광대 한 남반부지역들의 해방 제2절 인민군의 전략적 후 퇴, 원수들을 반대하는 전인민 적 투쟁	제5편 조국해방전쟁 제1장 조국해방전쟁의 개시, 남반부 넓은 지역의 해방 제1절 미제의 전쟁도발, 조 국해방전쟁 승리를 위한 전략 적방침 제2절 반공격에로의 이행과 서울해방 제3절 대전해방작전과 랑동 강계선에서의 혈전 제4절 전시생산과 전선원호, 남반부에서의 민주개혁	제3장 조국해방전쟁 제1절 조국해방전쟁의 개시, 남반부 넓은 지역의 해방 제2절 조선인민군의 전략적 후퇴와 반공격준비 제3절 전군의 근본적 전환, 조선인민군의 반공격 제4절 적극적인 진지방어전 제5절 조선노동당의 조직사 상적 강화, 미제의 군사적 모 험의 파탄과 조선인민의 위대 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 제6절 조국해방전쟁승리의 역사적 의미
제3절 조선인민군과 중국인 민지원군의 협동작전에 의한 5 차의 작전 제4절 전선의 고착과 진지방 어전으로의 이행, 미제무력침 공자들의 공세를 격파, 정전협 정의 체결 제5절 조국해방전쟁에서 조 선인민이 점취한 승리의 역사 적 의의와 그의 기본요인	제2장 조선인민군의 전략적후 퇴와 반공격 제1절 적의 모험적인 침략기 도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 제2절 강점지역들에서의 미 제의 만행, 인민유격대 및 청 소년근위대들의 투쟁 제3절 아군연합부대들의 반 공격, 적후투쟁 제4절 혁명적규율의 강화, 후방의 복구정비 제5절 전선에서의 끊임없는 소모전과 강력한 선제타격	
	제3장 적극적인 진지방어전,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 제1절 진지방어전으로의 이 행, 하기 및 추기 방어작전 제2절 조선인민군의 적극적 인 군사활동, 주체전법 제3절 후방의 공고화, 전후 복구건설준비 제4절 미제의 야수적만행, 조 선인민에 대한 국제적지지성원 제5절 당의 조직사상적강화, 미제의 군사적 모험의 파탄 제6절 조국해방전쟁의 위대 한 승리	

	제4장 조국해방전쟁시기 문화 제1절 교육과 과학기술 제2절 문학예술과 출판보도 제3절 보건과 체육	
제26장 전후조국의 평화적 통일 일을 위한 투쟁과 북반부에서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의 승리적 완수(1953.8-1956.12) 제1절 전후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 회주의건설을 위한 조선노동당 의 기본방침, 인민경제복구건 설을 위한 준비사업 제2절 전후 인민경제복구발 전 3개년계획 실현을 위한 투 쟁, 공업의 급속한 복구발전과 농업협동화운동의 양양 제3절 조선노동당 제3차대회, 제1차 5개년계획의 기본방향 제4절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의 성과적 완수, 인 민생활의 급속한 개선 향상 제5절 전후 남반부의 사회경 제형편, 평화적 조국통일추진 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	제6편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 의기초건설 제1장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 제1절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 본로선.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 제2절 생산관계의 사회주의 개조 제3절 주체화립에서의 근본 적인 전환, 당의 통일단결의 강화	제3편 사회주의의 건설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제1장 사회주의기초건설 제1절 전후의 국내정세. 사 회주의기초건설의 총체적 과업 제2절 전후인민경제의 복구 건설 제3절 생산관계의 사회주의 적 개조 제4절 주체화립을 위한 투쟁 제5절 천리마운동
	제2장 사회주의공업동업국가 어로의 전변 제1절 사회주의건설에서의 혁명적대고조 제2절 사회주의제도의 수립,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 제3절 공업화의 기초축성,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 제4절 혁명전통교양과 공산 주의교양의 강화, 천리마운동 의 심화발전 제5절 청산리정신, 청산리방 법의 창조, 사회주의기초건설 의 완성 제6절 전후 남조선혁명과 조 국통일을 위한 투쟁, 제일조선 인운동의 발전 제7절 사회주의나라들을 비 롯한 세계 혁명적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의 발전	제2장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 설 제1절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 설로의 이행 제2절 청산리정신, 청산리방 법의 관철 제3절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적극적 추진 제4절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의 병진, 전인민적 방위체계의 수립 제5절 사상혁명,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제6절 사회주의공업화의 실 현

	제3장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문화 제1절 교육과 과학기술 제2절 문학예술과 출판보도 제3절 보건과 체육	
	제7편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을 위한 투쟁 제1장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의 착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강력한 추진 제1절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을 위한 웅대한 강령. 여섯 개고지점령을 위한 투쟁 제2절 새로운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의 확립 제3절 자위적인 국방력강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 제4절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적극적 추진 제5절 당,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 일군들의 양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제고	제3장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 제1절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 제2절 은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의 강화, 국가사회제도의 공고화 제3절 은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 3대혁명의 강력한 추진 제4절 사회주의대건설투쟁 제5절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의 개화발전 제6절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
	제2장 7개년인민경제계획의 성과적수행,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전변 제1절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새로운 혁명로선,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에서의 결정적전환 제2절 경제, 국방 건설에서의 새로운 양상,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심화발전 제3절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의 철저한 구현.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전변 제4절 통일혁명당의 창건. 남조선인민들의 반제반파쇼민주화투쟁의 강화 제5절 세계혁명력량과의 단결의 강화, 대외관계의 확대발전	제4장 남조선인민들의 구국투쟁 제1절 4월인민봉기 제2절 군사파쇼독재의 수렴,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 제3절 통일혁명당의 창건과 반제반파쇼투쟁의 강화 제5장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 제1절 조국통일을 다그치기 위한 주동적 공세 제2절 7.4남북공동성명. 남과 북의 대화 제3절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분쇄하고 통일위업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 제6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제적 지위의 강화 제1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적 대외정책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관계의 급속한 확대발전

제27장 해방 후 인민교육 및 과학, 문학예술의 발전 (1945.8-1956) 제1절 인민교육체계의 창설과 민주교육의 발전 제2절 해방후 과학 및 출판문화의 발전 제3절 해방후 민주주의적 민족문학예술의 발전 제4절 해방후 남조선의 문화상태 제5절 조국해방전쟁시기의 교육, 과학 및 문학예술 제6절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시기의 문화	제3장 사회주의 전면적건설시기 문화 제1절 교육과 과학기술 제2절 문학예술과 출판보도 제3절 보건과 체육	
	제8편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 제1장 3대혁명의 심화발전, 6개년계획의 수행 제1절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투쟁로선, 6개년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투쟁 제2절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 통일의 강화, 사회주의헌법제정발포 제3절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 3대혁명의 강력한 추진 제4절 사회주의대건설, 인민경제발전 6개년계획의 기한전완수 제5절 제2차7개년계획의 착수,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 제6절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 남조선에서 반파쇼민주화투쟁의 심화발전	

	제2장 80년대 총진군의 개시, 제2차 7개년계획의 수행 제1절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강령, 사회 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당 목표 실현을 위한 투쟁 제2절 위대한 수령님 탄생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대정치축전, 주체사상과 주체 의 당 및 국가 건설리론의 심 화발전 제3절 제2차7개년계획의 수 행, 인민생활의 향상 제4절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 립방안,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 족적투쟁의 강화 제5절 반제자주력량과의 단결 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주체 사상연구보급사업의 심화발전	
	제3장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 당기기 위한 투쟁시기의 문화 제1절 교육과 과학기술 제2절 문학예술과 출판보도 제3절 보건과 체육	

V.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1958년 이래 최근까지 역
사 서술의 기분이 되는 시대구분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그들은 고대노예사조유사회에서, 중세봉건사회를 거쳐 현대
로 이어지는 3분법을 수십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중
세봉건사회 다음에는 자본주의시대가 출현하는 것이 마르크스의 유물
사관에 따른 3분법적 시대구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중
세봉건사회가 19세기 후반의 개항시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1977년판 『조선통사』(상)의 제10장을 예로들어 보면 17세기 이후 한국
사회에 “상품화폐관계의 발전”이라는 제목이 보인다. 이것은 17세기 이

후 한국사회에 자본주의적 사회가 출현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제3편 봉건사회라는 틀 안에 들어 있다. 그리고 개항이후는 1987년판 『조선통사』(하)에서 보듯이 “근대 반침략반봉건투쟁과 민족해방운동”,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의 방향 전환을 위한 투쟁”, “항일혁명투쟁”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 등으로 역사가 서술되고 있다. 이것은 이들이 역사서술에서 유물사관론적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은 북한사회의 독특한 현실에 맞추어 많은 변형을 가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특징이라는 것은 외세에 대한 투쟁과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경향이라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977년판 『조선통사』(상)의 머리말을 보면 이 책의 서술하는 데 있어서 김일성의 가르침이 절대적이었음을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사회과학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를 비롯한 일련의 로작과 교시들에서 력사연구에서 지도적지침으로 삼아야 할 방법론적 무기를 안겨주시고 그 구체적제목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가 역사를 학습하자는 것은 왕이나 봉건통치배들의 력사를 알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투쟁의 력사, 창조의 력사를 알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민의 투쟁과 창조의 력사를 잘 알아야만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소유할 수 있으며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자존심을 가질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1970년대 중반이후에는 더욱 철저하게 김일성의 영도를 강조하고 정당화하기 위하여 역사를 서술하였으며, 또 그 역사는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자존심”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때문에 이러한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서술된 이 책에서는,

먼저 역사서술전반에 걸쳐 철저한 주체적립장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건, 인물 평가에서 로동계급적선을 세우며 민족 문화유산계승에서 복구주의와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서술의 기조는 다른 모든 책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의 역사서술은 그 안에 사소한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가 없었으며, 특히 197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에는 그런 성향이 더욱 경직되고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북한에서는 다양한 견해를 가진 여러 종류의 역사서가 나올 수가 없으며, 오직 북한 정권의 견해를 반영할 뿐이다. 북한의 역사학은 이처럼 정권에 철저하게 예속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역사학의 체계가 수십년 동안 거의 변화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정권의 기본 속성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의제에 대한 극단적인 배타성과 민족지상주의라는 두 가지의 기본요소는 결국 북한의 김일성 식 주체사상에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었으며, 그와 같은 북한 당국의 기본 방침은 조금도 변하지도, 완화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정권의 방침이 이처럼 완강하다면, 그들의 역사학도 더욱 경직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북한 역사학의 체계에 대한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나는 북한에서 서술된 세계사, 혹은 다른 나라의 역사에 대한 책이 나온 것이 있는지를 무척 알고 싶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 그런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현재 나의 능력으로는 그런 책의 유무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였다. 만약 북한에서 서술한 세계사나 다른 나라의 역사에 대한 책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북한 역사학의 체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북한의 역사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들은 과연 세계의 역사를 그 주민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을 것인가, 것처럼 북한이 특수한 사회라고 강조하면서 세계 다른 나라의 역사를 서술하고 교육할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버릴 수가 없었다. 어느 의미에서 북한은 그들이 그렇게나 떠받드는 주체사상이 만개한 완성된 사회로 보는 것 같다. 이러한 나의 판단이 맞는 것이라면 그들은 것처럼 완성된 유토피아를 외부의 침략이나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할 필요만 있을 뿐, 더 이상 그 사회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는 전혀 없는 사회였다. 이와 같은 북한체제에서는 역사란 단지 그들이 이룩했다고 믿는 하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며, 그런 과정을 방해하는 국내외적인 위협에 대한 투쟁의 역사일 뿐이었다. 그러므로 북한에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역사학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사학적인 방법론만이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